

향기로운 예술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누리원, 김외자, 김정연A(이선분), 김정자,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창길, 김춘화, 김태훈, 박순자, 방원식(이단수), 백근영(윤숙), 석애자, 송명숙, 송령기(김현숙), 오영순, 유승용, 윤조훈, 이선미, 이영순, 이옥남, 이찬호, 이한웅(김순옥), 이향교, 임형문(박금옥), 전순봉, 채명엽, 채희춘(황영옥), 최상걸(이미향), 최원지, 최정순, 황군욱(이경주), 무명.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 강준식(김정연B), 김경엽, 김만형, 김순옥, 김정환(임영미), 박복순, 박부웅, 박순자, 박춘화, 백경자, 손정아, 오영순, 윤숙, 이경자, 이복현, 이선미, 이영순, 이옥남, 이찬호, 임형문, 전순봉, 조옥자, 최상걸(이미향), 한나여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감사현금

이필례, 김병율(이영숙), 김준구, 박권제, 박복례, 박부웅(최귀남), 박정숙, 박춘자, 신점순, 신화순, 오택현(김윤주), 윤승한(민옥희), 윤정호(유옥자), 이경자, 이선미, 이춘휘, 이효숙, 전순봉, 전영선, 정영심, 채명엽, 황웅광, 무명.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정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율,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이춘호,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무명.

월정현금

김외자, 박순자.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2014년 제 45주 : 사도행전 9장 - 로마서 3장

주 일	사도행전 9 - 13장		
월요일	사도행전 14 - 16장	목요일	사도행전 23 - 25장
화요일	사도행전 17 - 19장	금요일	사도행전 26 - 28장
수요일	사도행전 20 - 22장	토요일	로마서 1 - 3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숙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강도사 김성종

전도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나 : 김안나
시온·에덴 : 최원자 호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롯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이집트: 김신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욱 AX국: 김해월
AX국: 박동권 김명화 AX국: 이분욱

협력선교사 태국: 박영성 정세미 태국: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김홍기 AMA: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11. 2. 주일 예배 설교

우리의 싸움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7절

설교: 이진우 목사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욕하고 오해하며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럴듯 수많은 오해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성도들에게 대하여는 서로 대적하며 싸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씀드립니다. 과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워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1. 우리가 격파해야 할 원수들

1) 로마서 8장 5-6절을 보면 성도는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당대히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굽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은혜가운데 거하여야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원수가 되게 함으로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죽음에서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본문 5절에서 성도는 삶의 우상에 대하여 싸워야 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삶에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보다는 자녀가, 물질이, 명예와 지식이 삶의 우상이 되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행복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언약을 세우시며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깨고 싸워 이겨야 신앙의 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3) 본문 5절 하반 절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이라는 헐라이는 “판 노에마”입니다. 이는 생각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에마”的 뜻은 “생각, 마음, 목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삶의 모든 생각, 마음,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 행하는 일들의 목적까지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2. 우리의 무기

1)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했습니다.

2) 이 영적인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줍니다(고후 13:4).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3)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예수로 구주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로 삶의 무기를 삼고 그 온해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3.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1)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3~17)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구름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무기가 되지 않는 듯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삶 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며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오늘 이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 예배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오늘 나의 삶속에서 이기기 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럴게 할 때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삶의 우상을 이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적군의 견고한 진은 격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격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4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My heart belongs to GOD JESUS CROSS My heart belongs to GOD JESUS CROSS My heart belongs to GOD JESUS CROSS My heart belongs to GOD JESUS CROSS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